

태풍 대비 피해 예방 총력

최용범 행정부지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당부 4개 시군 호우주의보 발효...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북도는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월 2일부터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와 함께 10월 1일 9시 50분부로 도내 4개 시·군(남원·장수·임실·순창)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는 신속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4시간 태풍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은 중형의 강한 태풍으로 10월 1일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북북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북방향으로 22km/h로 이동 중이며,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나 2일 21시경 전남 목포 남서쪽 해안으로 상륙해 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 1~4일 사이 100~200mm,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와 함께 4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태풍 예비 특보가 발표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태풍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했고, 또한 10월 1일 9시에 행정부지사(최용범) 주재로 14개 시·군 단체장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태풍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특별히 추수철이 임박했고,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 피해에 이은 강풍과 집중호우로 농산물의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확 적기 농가가 수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 홍보를 통해 농산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강풍에 의한 간판탈락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견고한 조치는 물론 강풍시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축대붕괴 등 산사태도 우려되니 시군별로 풍수해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는 물론, 강풍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시설 및 축사, 수산장·양식시설 등에 대한 사전 결박과 꼼꼼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도 강화하도록 했다.

도민 스스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강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되도록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진성 기자



정부, 일본 수출규제 3개월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심의 돌입

2021년 완료 목표로 인증 추진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에 관한 지질명소의 가치평가와 운영 역량 등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명품 관광지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의 첫 관문인 후보지 현장실사 등의 본격적인 인증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와 군산시는 2017년부터 고군산군도 일원의 지질자원 가치 조사 등을 통해 탐도와 선유도 등 우수 지질자원 10개소를 최종 지질명소로 선정했으며, 2018년부터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구축, 지질탐방로 설정 등의 2개 인증 필수조건 확충 계획 수립, 지질공원 운영 역량 자체 평가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여 지난 8월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기 제출한 후보지 선정 신청서와 제반 서류의 서면심의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전문 심사위원 현장 실사와 11월 중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최종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인증 심의에서는 지질공원 관리와 운영기반, 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질공원 제도의 운영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및 주민의 운영 의지와 역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도와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지질명소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성과 생태·역사·문화 등 비지질자원 연계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질명소 보전계획과 지속성 등을 추진하여 지난 8월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여할 수 있는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인증 평가에서 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적극 부각하여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에 이끌어낼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2021년 국가지질공원 정식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필수조건 등 운영 기반 확충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2개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조건 중 지질탐방로 설정, 주민 협력기관 발굴 및 지질공원 관리체계 구성 등의 9개 항목을 후보지 신청 이전에 완료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지질공원 센터 조성 등의 탐방 안내시스템 구축, 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의 잔여 12개 필수조건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 성료... 환대실천 다짐 선언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전북도는 1일 전주 JS관광호텔에서 세계 관광의 날(매년 9월 27일, 유엔 세계관광기구 지정)을 맞아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우병기 도 정무부지사, 정호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최수연 전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관광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2명, 전북도지사 표창 8

명, 전라북도의회회장 표창 5명 등 총 27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특히, 전북도 관광인이 함께 모인 지리산 만큼 식전행사로 환대서비스 교육이 진행됐으며 전북 관광 최일선에서 '진절이 최고의 경쟁력'임을 깊이 명심하고 전북의 '맛과 멋,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환대실천 다짐 선언'을 실시했다.

또한 가을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군 대표축제, 시골미를 작은 축제 등에 전부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미소, 배려, 응기'를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이 기억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우병기 정무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뜻깊은 관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더 머물고 싶고, 더 찾고 싶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권 기관 뭉쳐 개인정보 보호를 논하다

중앙-전북도, 현장 간담회 개최... 주요 시책 공유·발전방안 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북지역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1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전북지역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이 모여 국민 생활 접점에 있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대학(전북대학교), 지방공기업(전북개발공사)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관련된 기관과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 기반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년~2023년)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할 개인의 자산이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이번 현장 간담회는 매우 뜻깊은 일이고,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중앙-지방간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0월에도 도내 곳곳 체육행사 '풍성'

공도·사격·당구·골프·보디빌딩 등 다채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북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육 행사가 펼쳐진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3일까지 김제 홍심정에서는 '제2회 지평선축제' 및 '제15회 김제시장기전국남녀공도대회'가 열리고 제7회 전국남녀공도대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임실에서 진행된다.

제4회 전북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사격대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북 종합사격장에서 펼쳐지고 제3회 국가식품클러스터배당구대회와 제8회 부안군수기전국남녀공도대회는 27일 각각 익산과 부안에서 열린다.

도내 대회도 12개 종목에 13개 대회가 예정 돼 있다.

전북 아마추어 남녀동호인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전북씨름왕선발대회와 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전북 대학동아리테니스대회, 전북 철인3종 동호인대회, 전라북도지사배 보디빌딩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10월, 도내에서도 각종 체육대회가 펼쳐진다"며 "도내 곳곳이 체육인들로 떠들썩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응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원)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강사양성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강사양성으로 제2의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 ⑤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티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